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속 진행



올해로 53회째를 맞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는 9일 정읍 황토현 전적 앞마당에서 열린다. 기념제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가 주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역행사와 축제가 줄줄이 취소·연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올해 기념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스마트 기념제'로 준비됐다. 제53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용권)에 따르면 매년 5월 11일을 기점으로 53년간 이어 온 기념제는 황토현전적일인 5월 11일 날짜가 지나는 상징성 있어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고 '스마트 기념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진행을 결정했다.

9일 정읍 황토현 전적 앞마당서 최소 인원만 참석
온라인으로 기념제·구민사 제례·시상식 등 생중계
동학혁명 기념일 국가기념식, 11일 같은 장소서 열려

매년 2~3일간 열렸던 기념제를 9일 하루만 진행하고, 각종 공연과 체험마당,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전면 폐지하며 행사내용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념식과 시상식(동학농민혁명대장, 제2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대상), 구민사 제례,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등 공식행사만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기념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기념제와 제례 등을 생중계한다. 더불어, 정읍시내 일원에 동학농민혁명 홍보 조형물(깃발, 죽창, 걸개드립 등)을 설치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념제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 방역, 비접촉 체온계 및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의무착용 등을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념제를 진행토록 준비중이다. 시와 계승사업회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지난 52년간 치러졌던 기념제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53회 기념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 시와 계승사업회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국가기념식 역시 오는 11일 정읍 황토현전적에서 열린다. 시는 국가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례여중 축구부 감동실화, 오늘 스크린에서

영화 '슈팅걸스' 개봉...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조소현, 추천영상 공개

삼례여중 축구부의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영화 '슈팅걸스'가 6일 개봉한다. '슈팅걸스'는 단 13명의 부원으로 2009년 여왕기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지역 삼례여중 축구부와 고 김수철 감독이 일궈낸 우승 실화를 감동적으로 담아낸 영화로, '코카콜라 살인사건', '진주라 천릿길' 등을 제작한 배효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정용인, 이비안, 정예진, 정지혜가 출연했다. 삼례여중 축구부는 수많은 여자축구선수를 배출하고,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우승 드라마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여중부 우승을 거머쥐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삼례여중 축구부원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축구화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고, 잔디가 깔리지 않은 맨땅에서 구슬땀을 흘려야 했다. 게다가 선수가 부족해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 뛠 수 없는데도 선수 교체를 할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삼례여중은 단 13명의 선수로 8일 동안 리그전 3회와 토너먼트 3회의 경기를 치르며 당당히 결승에 올랐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인천 가정여중을 2대 1로 누르며 창단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삼례여중 아이들이 만들어낸 영화 같은 이야기에 배효민 감독은 한 매체를 통해 "13명에 불과한 선수로 우승 신화를 일궈낸 삼례여중 축구부의 투혼을 알리기 위해 제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슈팅걸스' 개봉을 앞두고 2019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국가대표 조소현 선수가 추천영상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WFC에서 뛰고 있는 조소현 선수는 추천 영상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 '슈팅걸스'가 6일 개봉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슈팅걸스 파이팅! 대한민국 여자축구 파이팅!"을 외쳤다. /장은성 기자

'정읍, 동학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 역사 왜곡 바로 잡아 나아가야'

고부봉기가 없었다면 무장기포, 백산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되었을까?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봉기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고부봉기는 고을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학정을 일삼는 고부군수 조병갑을 죽이기 위해 일어난 우발적 민란이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고부봉기가 아니라 무장기포라 주장하고 있다. 1968년 정읍에서 사발통문이 발견됐다. 1893년 11월에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봉기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치밀한 준비과정 끝에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했다. 특히,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나아가자'의 내용으로 볼 때 고부봉기는 지역을 벗어나 봉건사회 부조리에 저항하여 일어난 조선 후기 여타 민란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성격의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부봉기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왜곡되고 축소되면서 지역적 사건으로 폄하되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1월의 고부봉기는 제외되면서 역사적 왜곡과 축소는 그 정점에 달했다. 또한, 새로 개정된 한국사 검인정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1차 봉기는 무장기포라는 서술 내용은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통해 고부봉기가 발생했고, 이후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전투 승리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정읍시 "사발통문, 혁명 기록물 첫번째 문서, 농민군이 직접 남겨"
유진섭 시장 "향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로잡기 앞장"

됐다. 따라서 이제라도 고부봉기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의 사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지난 2017년 2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이 직접 생산한 기록물, 동학농민군을 진압

한 민간인이 남긴 문집과 일기, 동학농민혁명 견본기록, 조선정부가 생산한 공문서와 보고서,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이 생산한 공문서 등 전체 175건 약 1만 2천여면이 신청됐다. 그중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첫 번째 문서이다. 사발통문은 동학농민군이 직접 남긴 유일한 자료로, 상징적 의의와史料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같은 평가와 인정을 받은 것이다. 고부봉기 거사 계획을 준비했던 사발통문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첫 번째 문서로 지정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사발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120년 전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역사적 왜곡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이제라도 온전한 평가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 지역예술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다큐멘터리 제작

순창의 지역문화예술인이 '2020년 순창의 봄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순창 지역내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창작집단인 '프로젝트 모색'의 첫 번째 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고 순창의 봄을 이어나가는 지역민의 일상을 옴니버스 형태로 담아내고 있다. 지난 5일 촬영을 마치고 순창 작은영화관인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개관 일정에 맞춰 시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모색'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영상 예술가들이 포인 프로젝트팀으로 전 SBS 차재훈 PD, 이근요 미디어 크리에이터, 인생영상이 참여한 다. 카카오톡에 관련 오픈채널을 개설한 프로젝트팀 '모색'은 관내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해 이미지나 글귀, 영상 등 응원 메시지를 접수 받아 영상말미에 넣을 예정이다. 5월 말이면 작은영화관 스크린에서 코로나19로 희망을 잃지 않고 순창의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